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재외동포청  추 인천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10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경제정책과	담 당 자	• 소비자물가담당 김상정 • 담당자 김록희		☎ 440-4201 ☎ 440-42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약철회 상습 거부한 ‘(주)티옴커뮤니케이션’ 쇼핑몰 주의 당부

-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마일리지로 환불 처리 -
- 거래 시 가급적 현금사용 말고, 신용카드 사용 당부 ... 피해 시 1372 상담센터 문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주로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주)티옴커뮤니케이션’ 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뎡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불거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티옴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63건으로,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옴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불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으나, 해

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 등의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 (과태료)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해당업체 소재지인 남동구청과 미추홀구(고객센터 소재지)는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